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 정상화 기만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출입금지 자택대기 갑질 횡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

□ 진행 순서

사회- 서형태

- 1) 투쟁경과 및 발언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지회장
- 2) 규탄발언 - 금속노조 정주교부위원장
- 3) 규탄발언 - 변혁당 인천시당 최명숙대표
- 4) 규탄발언 -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변호사
-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준삼 조합원
- 6) 폐회

□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지엠 정상화 기만이다. 출입금지, 자택대기, 갑질 횡포 중단하라!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피하고, 안전을 이유로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무기 연기했다. 이어 각 업체 뒤에 숨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공장출입통제”를 지시하며 배후조종했다. ‘갑질횡포’와 삼성의 노조탄압이 만천하에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지엠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한국지엠정상화는 기만이다”며 기자간담회 참관을 요구한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는 4.24 노사합의, 5.10 MOU 체결에서도 빠져있었다. 막대한 국민혈세 8,100억 원이 지엠에 투입됨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건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가 아니라 지엠자본의 정상화일 뿐이다.

비정규직 사용으로 막대한 이윤을 착취해간 지엠은 경영부실 피해자로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올해 초 부평에서만 70여명이 해고되었고, 지엠 인수 이후 소리소문 없이 해고된 노동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또한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과 2018.2.13. 인천지법의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정규직이다. “공장출입을 통제당할” 이유도, “해고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한국지엠이며, 자택대기발령과 출입통제를 해야 할 자들은 바로 부실경영으로 한국지엠을 위기에 빠뜨린 경영진들이다.

한국지엠은 “GM의 기록적인 국내 직접투자는 직간접으로 고용된 20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성과가

될 것”이라며 “2019년 흑자전환”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뉴머니 36억 달러는 여전히 고리 대출로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가 빠져나가, 한국지엠의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며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실경영에 대한 실사는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공개조차 하지 않아 지엠의 범죄를 덮어주게 되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 해고문제에 눈을 감았다. 불법파견이 명백함에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엠의 고도의 부도협박에 항복하며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공범이 되었다.

아직 한국지엠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경영실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는 즉시 복직되어야 한다. 불법파견과 공장출입 봉쇄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짓밟은 지엠은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지엠의 미래는 없다. 살려야 할 것은 지엠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여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비정규 해고자 복직 없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는 기만이다!
불법파견 철폐 없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는 기만이다!
경영실사결과 공개하고, 부실경영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비정규 해고자 복직시키고,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공장 출입통제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8. 5. 16

한국지엠 갑질 횡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주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77-3 삼우빌딩 2층 금속노조 인천지부

지회장 : 황호인 / 담당연락처 : 서형태 (사무장, 010-9133-8506) / 팩스 : 032-506-9938

한국지엠 정상화 기자회견 돌연 취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한국지엠’ , 기자회견 참관 비정규직노동자 11명 전원 공장 출입금지, 자택대기 지시

5/14(월) 한국지엠은 경영 정상화 기자 간담회를 한국지엠 부평 본사 홍보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하였다. 배리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카젠 한국지엠 사장이 참석하는 자리로 8000억원의 혈세가 투여된 전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였다. 정상화에 기대를 갖는 국민의 열망에 걸맞게 많은 언론사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지엠 내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관심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간담회 자리에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며, 이후 진행될 기자회견이 방해받지 않도록 구석에서 침묵을 지키며 기자회견에 참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취소되고 책임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수십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지엠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들의 경영 정상화방안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의 눈총을 피하려했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노사 합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제외된 상황

과 정부와 한국지엠의 양해각서(MOU)체결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가 언급조차 없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였다. 부실경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통한 부당이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정상화의 길을 가기위한 공적자금이 투입 된다면 이는 투명한 경영과 합법적인 틀에서의 경영윤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는 금일 발생한 사항에 대해 ‘갑’ 사인 한국지엠으로부터 유감표명 문서를 받았고 위반 당사자에 대해 출입통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지엠 협력업체의 경고장(5/14)에 적힌 문구이다. 한국지엠 내 4개업체 11명의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낸 경고장으로 문구도 똑같으며 내용도 동일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한국지엠이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하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5/15(수)부터 당사자들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린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버젓이 한국지엠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작업자의 인사명령까지도 관여하는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불법파견을 스스로 인정함과 동시에 나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최근 삼성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파괴 공작과 각종 부당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지엠 내에서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 싶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바, 협력업체의 대기발령과 출입통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출근과 조합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 정상화 기만이다!
출입금지, 자택대기, 갑질 횡포 규탄 기자회견
5.16(수) 오전 11시 부평공장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현장 출근

2018년 5월 1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별첨자료 : 경고장

경 고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가길 20, 지희(중(대입동)) / TEL : (02) 330-9434 / FAX : (02) 338-8215

문서번호 : 제 2018 - 180001호

시행일자 : 2018. 05. 14

발 신 : ㈜위캔테크

소 속 : 생산2부 SPS (B조)

실 명 : [REDACTED]

생년월일 : [REDACTED]

1. 당사는 ㈜위캔테크는 직원 재계산과 원만한 관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귀하는 2018년 5월 14일(월) 진행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기자회견장에서 당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허가 받지 않은 행동 (피켓시위 및 구호)을 하여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2. 당사는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공장내에서 계약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약상 허가없이 도급업무 작업영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의 작업영역 외의 공간은 '갑'이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당사는 갑일 발생한 사항에 대해 '갑'사인 한국지엠으로부터 유감표명 문서를 받았고 귀부 당사자에 대해 출입통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위반자([REDACTED])을 특정해서 한국지엠에 출입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취업규칙 제 30조16호, 72조10호 위반사 등에 대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자격대기를 병행합니다. 이 사실은 '갑'사인 한국지엠에 통보할 예정이며 평일인(2018년 5월15일)부터는 한국지엠에 출입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일이 재발된다면 회사는 사규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We
Can Tech

(주) 위캔테크 대표이사 김 선 미

